



# 초명 명리 12강

십성, 사회적 존재로의 확장



# 생각해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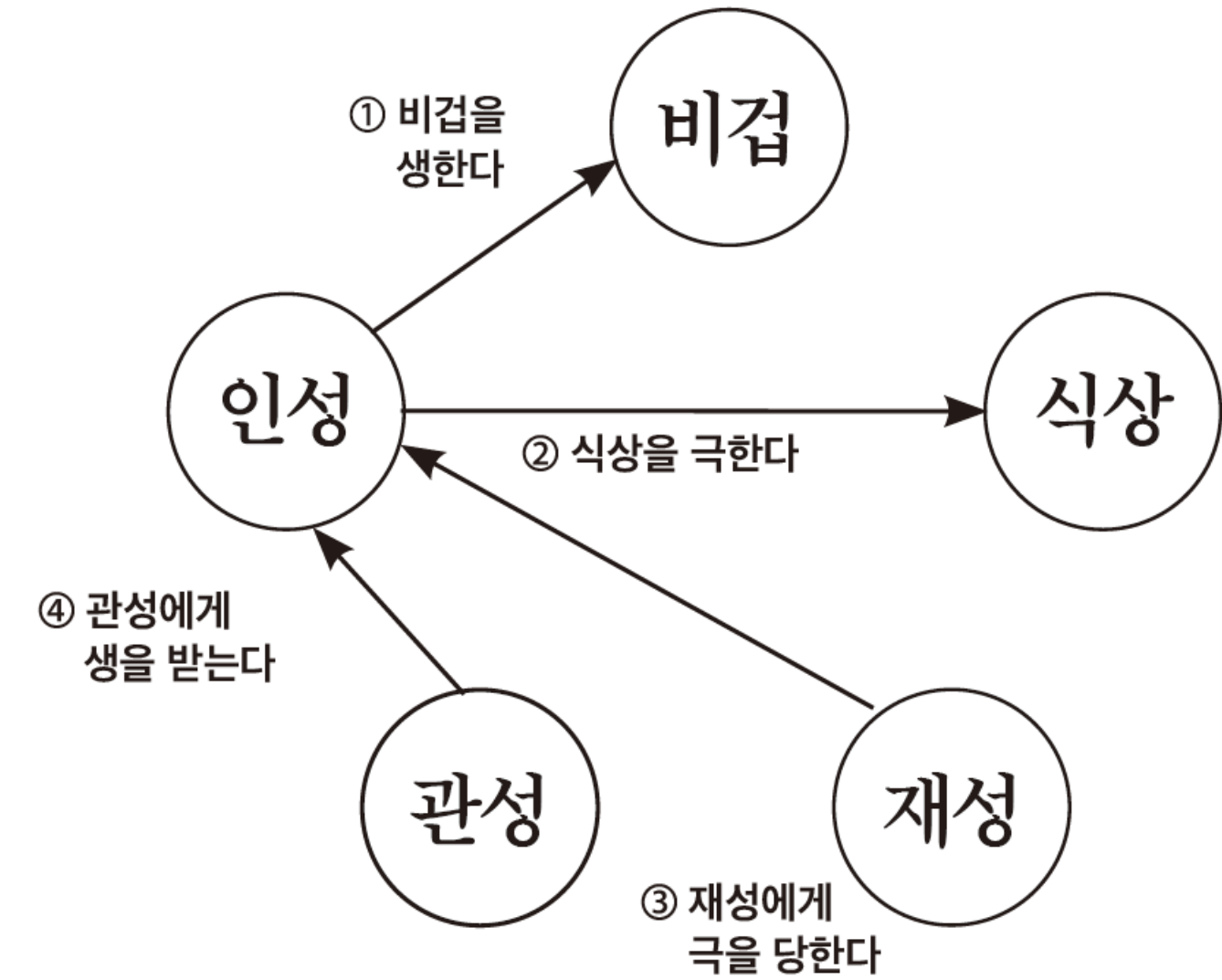
## ▣ 편인과 인성의 학문

- 정인은 일간과 음양이 달라 안정적인 반면에, 편인은 음양이 같아 변화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 함
- 정인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데이터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, 편인은 그 해석에 의구심을 갖고 자의적으로 바라 봄
- 결국 정인은 보편적인 학문이나 생각을, 편인은 분야가 한정되어 있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, 또는 새로 개념화되기 시작한 학문이나 생각을 의미함
- 편인의 학문은 실용적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속성이 강하고, 정인의 학문은 과거로부터 꾸준히 축적되어 내려온 전통적인 분야와 관련이 깊음
- 수학이나 생물학, 물리학 등 순수학문을 배워 해당 학과의 교수가 된 사람은 정인을 잘 썼다고 볼 수 있음
- 편인은 수학이나 생물학을 공부했더라도,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나 약사, 바이오 연구원이 됨
- 편인은 예체능이나 건축학 분야, 엔지니어, IT 프로그래머 등 실생활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응용 가능한 직업을 가지며,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 단위의 일을 하는 게 더 유리함

# 인성(편인+정인)의 이해

## ▣ 인성은 식상을 극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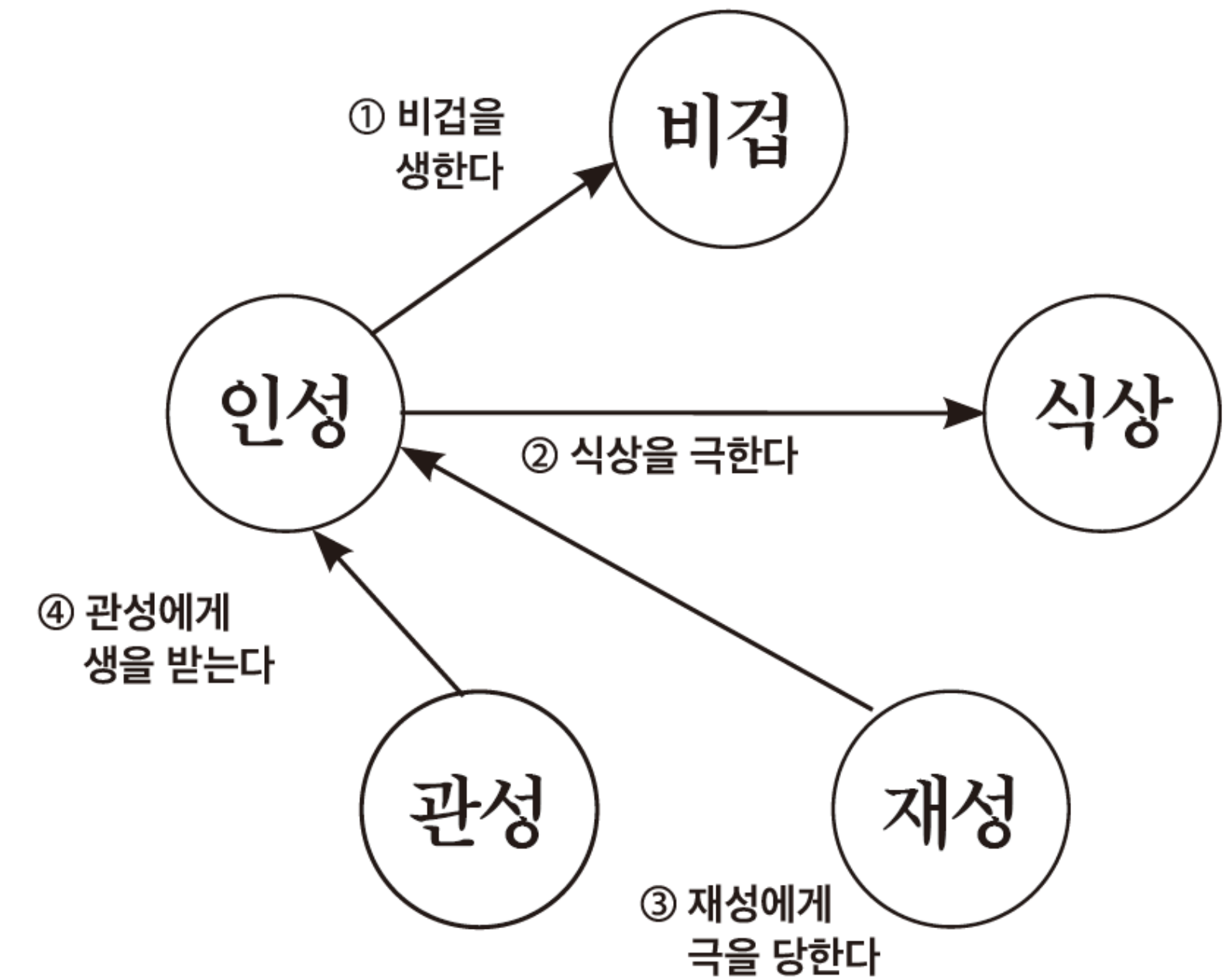
- 식상은 식복과 의식주, 소규모 공동체,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함
- 인성이 식상을 극한다는 이야기는,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고 싶어 하는 식상의 욕망, 식상의 활동성을 직접적으로 제어한다는 뜻
- 인성은 하고 싶은 걸 자제하며, 꾸준히 버티고 인내하는 힘
- 식상은 비겁인 나를 바깥으로 확장하는 기운이라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하며, 세상 바깥을 향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여기저기로 몸을 움직임
- 인성은 제자리에 앉아 엉덩이를 붙이고, 궁금해하는 것들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
- 인성이 뜻하는 통찰의 힘, 성찰의 힘은 학문과 관련된 영역에서 빛을 받함
- 학습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힌다는 뜻인데, 인성은 이 중 반복적으로 익히는 '습'에 가까움



# 인성(편인+정인)의 이해

## ▣ 인성은 식상을 극한다

- 식상이 지나치게 강하면 실천하기보다 말이 앞서고, 쓸데없는 말로 상처를 주다 보니 관계에 있어 구설수를 겪을 수 있음
- 이럴 때 인성이 식상을 적절하게 제어한다면 신중한 태도를 갖추고, 말하기 전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하게 됨
-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과다한 식상으로 인한 쓸데없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
- 사주에 강한 식상은 인성으로 제어되어야 한다는 뜻의 용어를 식상패인이라고 함(ex. 상관패인)



# 인성(편인+정인)의 이해

## ▣ 인성은 식상을 극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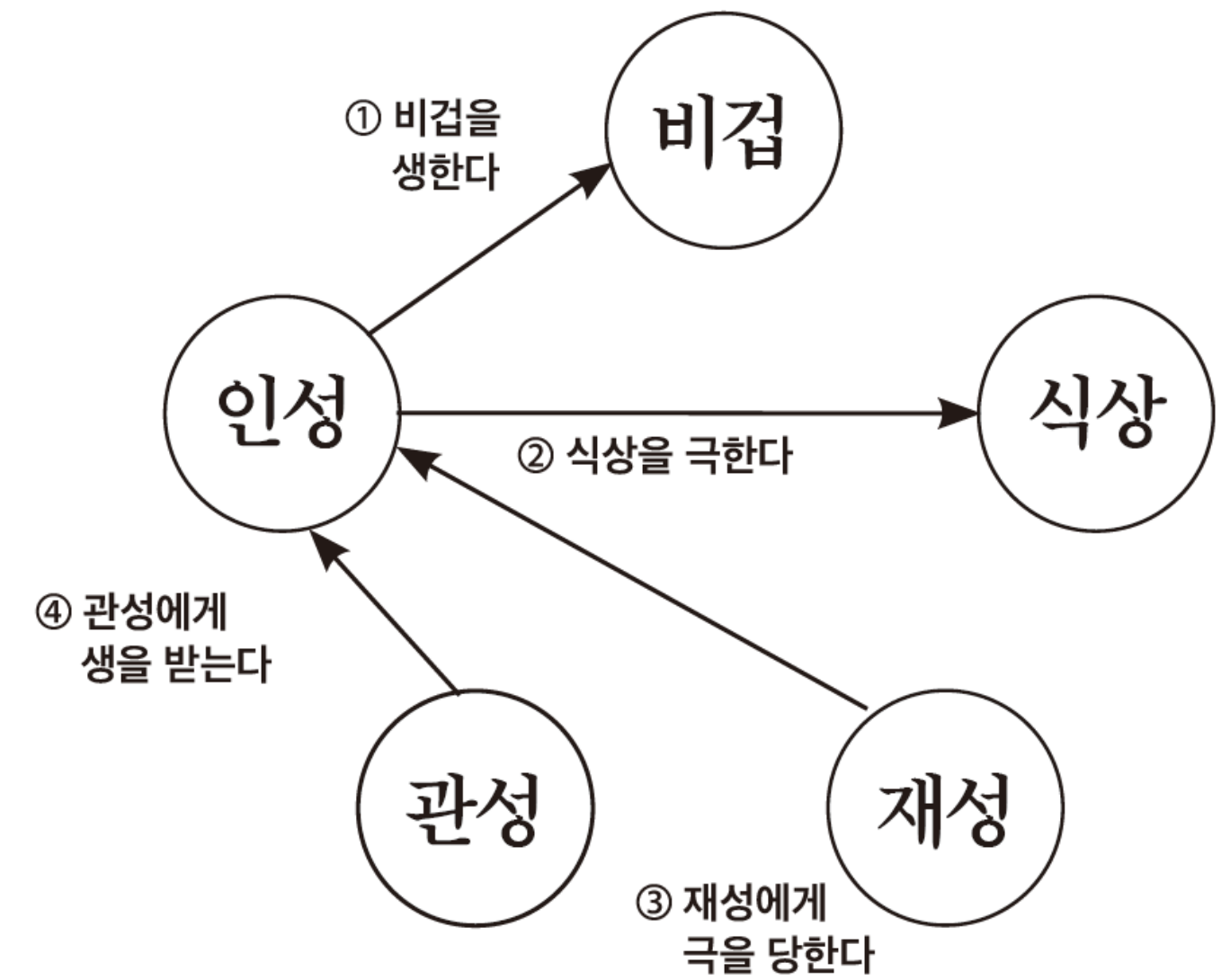
- 인성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면 의식주, 삶의 즐거움, 여유, 언어 표현 등을 뜻하는 식상을 제어하니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성이 줄어들게 됨
- 특히 편인의 경우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힘이 강한데 편인이 지나치게 식신을 극할 경우 부정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보았음
- 밖에서 재화활동을 해야 할 어른이 오타쿠적인 기질을 버리지 못한 채, 방안에만 틀어박혀 한 가지 일에만 탐닉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사회관계가 어려워진다고 본 것
- 이를 편인이 식신의 밥그릇을 엮는다는 의미에서, 0000라고 함
- 사실 0000된 사주는 먹고사는 게 힘들다고 여겨지지만, 편인의 끼와 천재성, 몰두하는 힘을 잘 활용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음
- 실제 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분들의 사주에는 편인의 기운이 강한 경우가 많음

시주	일주	월주	연주
●		●●	●
편인	본원	상관	편인
甲	丙	己	甲
午	寅	巳	子
갑재	편인	비견	정관
▲*	▲		*
丙己丁	戊丙甲	戊庚丙	壬癸
제왕	장생	건록	태
도화	역마		월공
양인			
월공			

# 인성(편인+정인)의 이해

## 인성은 재성에게 극을 당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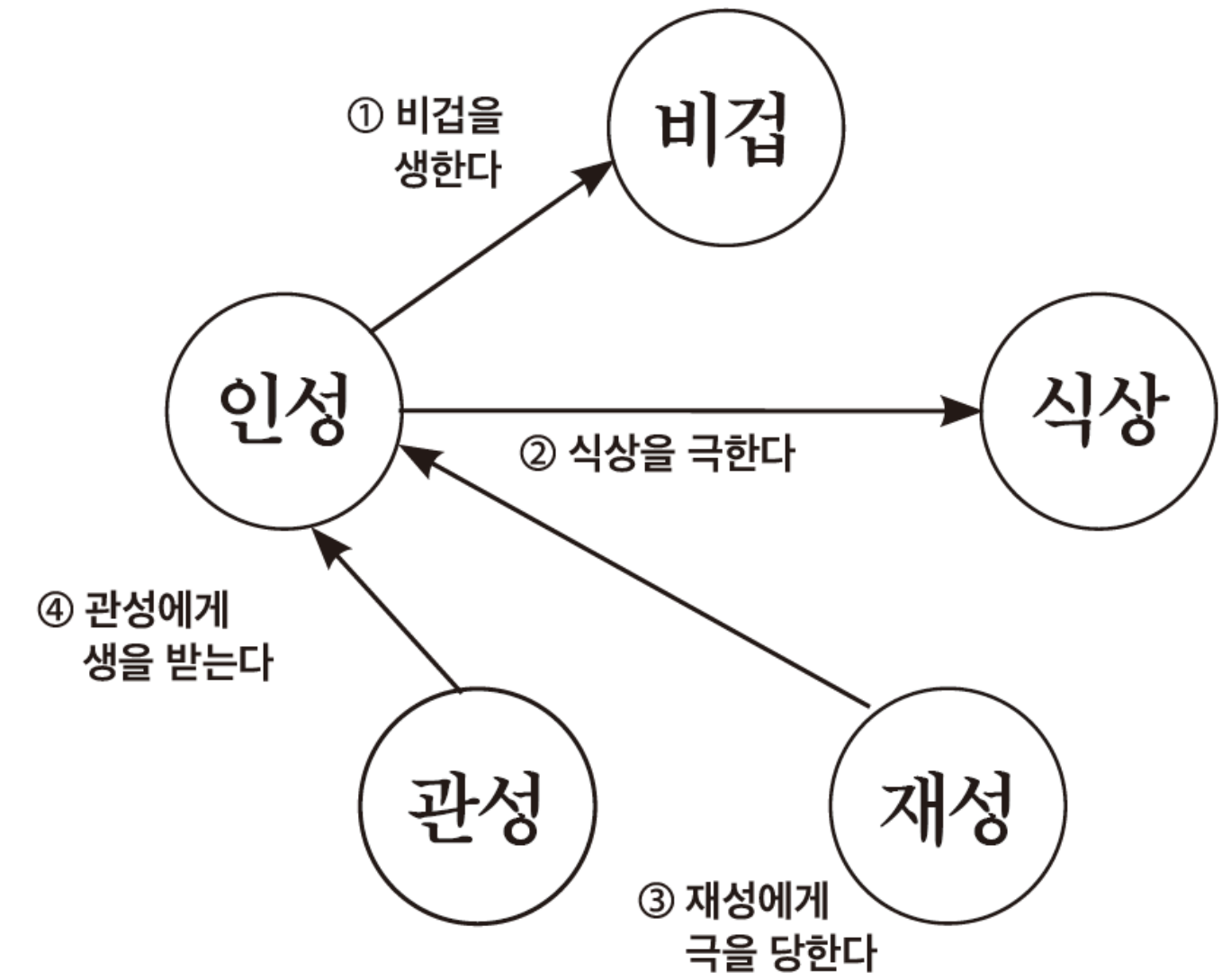
- 한자 인(印)은 문서에 찍는 도장을 뜻함
- 확장하면 사람들에게 문서를 통해 공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학문이나, 학위, 공부, 자격증을 의미함
- 이런 인성이 재성에게 극을 당한다는 건?
- 재성은 재물, 재화, 유흥, 즐거움, 인간관계 등 현실적인 욕망을 뜻하니, 현실의 즐거움을 좇느라 인성이 뜻하는 공부가 잘되지 않는다는 뜻



# 인성(편인+정인)의 이해

## 인성은 재성에게 극을 당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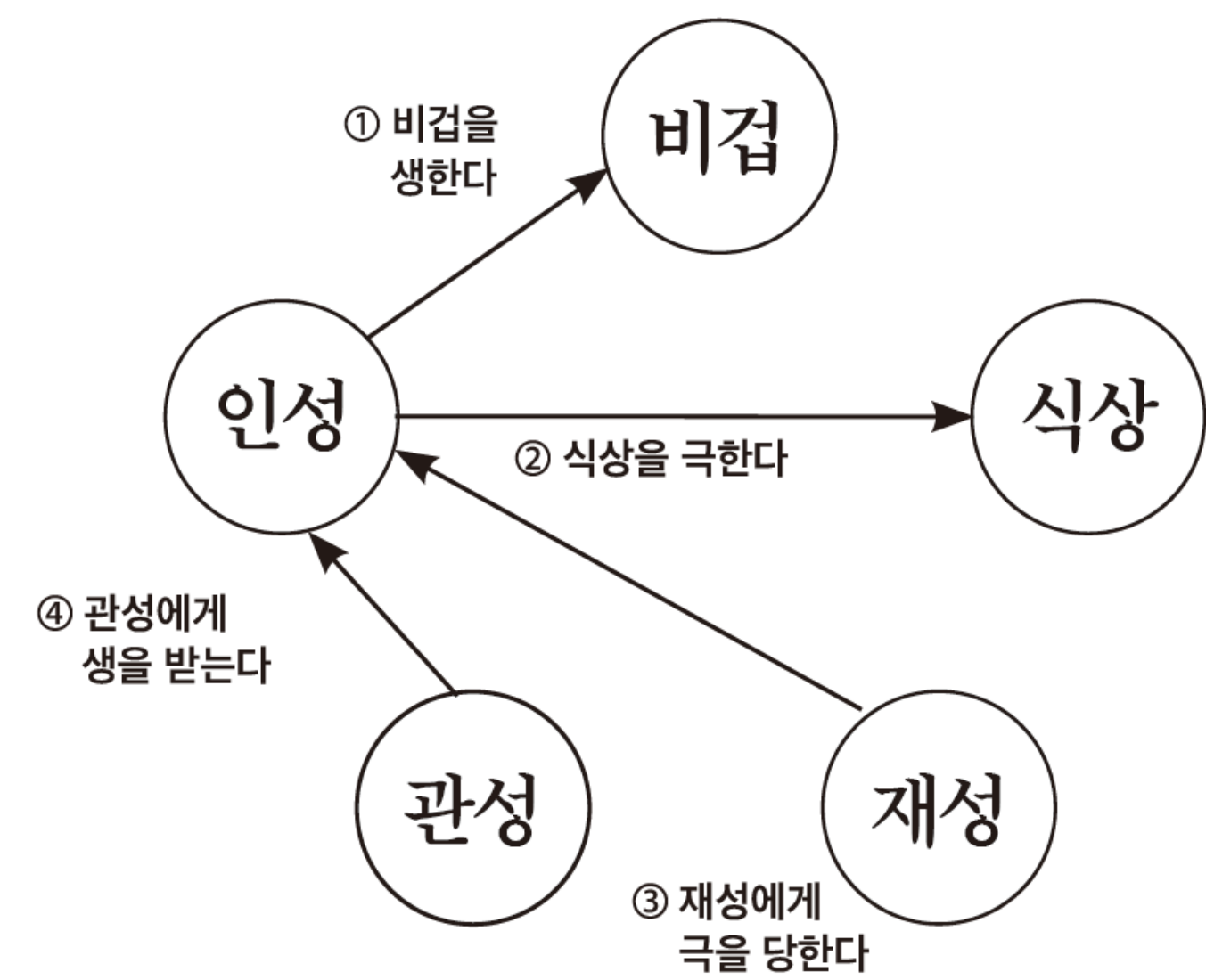
- 만약 인성이 재성의 기운을 강하게 소모시키면?
- 재성은 식상의 언어적 표현,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
- 사람은 성인이 되면 누구나 몸을 움직이면서(식상) 재화활동(재성)을 해야 하는데,  
인성이 재성의 기운을 강하게 소모시키면 재성이 뜻하는 일의 결과나 마무리가 부족해질 수 있음
- ex)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, 공부가 좋아서라기보다 단순히 취업을 유보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-> 공부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



# 인성(편인+정인)의 이해

## 인성은 재성에게 극을 당한다

- 인성은 학문성을 의미하지만, 인성의 기운이 과다한 경우 생각만 많아지고,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현재 상황에 안주하면서 여러 현실적 요소를 도외시하게 됨
- 재성이 현실과 물질 세계를 뜻하는 형이하학적 요소라면, 인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근원적인 성찰과 연관된 형이상학적 요소와 관련이 깊음
- 인성의 기운이 강하면 학문성이 강해져 끊임없이 책상에 앉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, 재성이 추구하는 재화활동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
-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것을 재극인이라 하는데, 만약 아주 강한 재성이 약한 인성을 극하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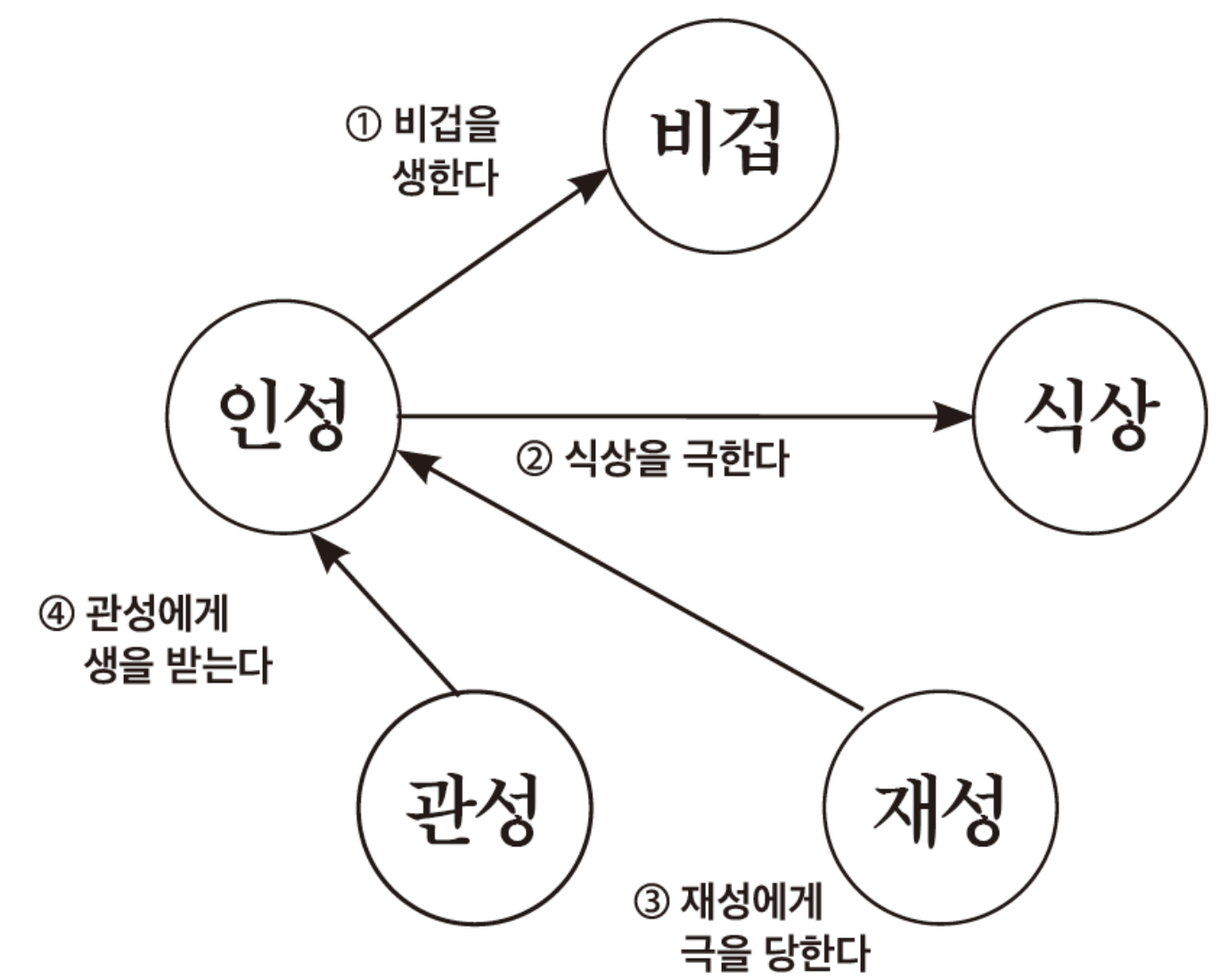




# 인성(편인+정인)의 이해

## 인성은 관성에게 생을 받는다

- 관성은 조직, 규범, 규율이나 회사, 직장 등을 의미 함
- 장사하는 사람이 매일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에, 새벽잠을 이겨내며 가게로 출근하는 것
- 관성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스트레스나 억압적 요소를 동반할 수밖에 없음
- 인성은 가게 사장이 매일 손님의 컴플레인에 시달리더라도, 관성이 뜻하는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힘으로 작용함
- 어떤 컴플레인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점차 깨우치면서, 가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자기 성장의 힘으로 치환하는 것 -> 인성은 내가 하는 일들을 인내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



# 인성(편인+정인)의 이해

## ▣ 인성은 관성에게 생을 받는다

- 문서에 찍는 도장을 뜻하는 인(印)은 확장하면 결재권을 갖거나,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, 자격증 취득, 승진등을 의미하기도 함
- 관성을 인성으로 승화한다는 이야기는, 인성의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나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뜻
-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던 회사원이 매일 야근을 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덕분에 마침내 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과 같음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▣ 사주 살펴보기

시주	일주	월주	연주
식신	본원	식신	편재
丁	乙	丁	己
丑	丑	丑	丑
편재	편재	편재	편재
꺾辛己	꺾辛己	꺾辛己	꺾辛己
쇠	쇠	쇠	쇠
백호		백호	

-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기운은?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▣ 사주 살펴보기

시주	일주	월주	연주
갑재	본원	비견	비견
甲	乙	乙	乙
申	酉	酉	酉
정관	편관	편관	편관
戊壬庚	庚辛	庚辛	庚辛
태	절	절	절
천을 월공 천의	도화	도화	도화

- 이 사주를 일간의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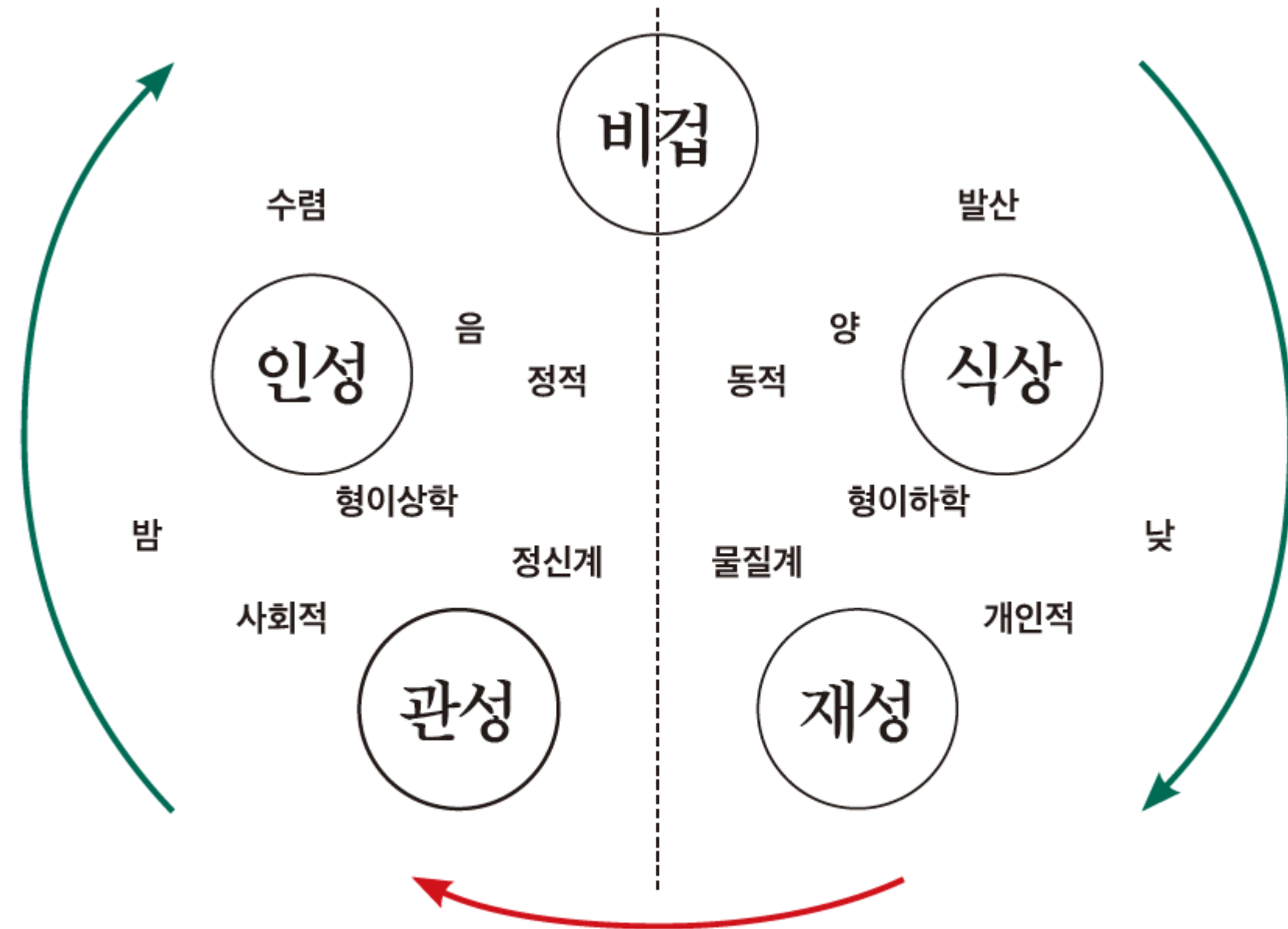
# 생각해볼 거리

## ▣ 심성의 유무

- 특정 심성이 없으면, 그 기운은 아예 쓸 수 없는 걸까?
- 식상이 없으면 글 쓰거나 강의를 못 하는 걸까?(ex. 요한 바오로 2세, 무라카미 하루키)
- 재성이 없으면 돈을 못 벌까?
- 관성이 없으면 직장생활을 못 할까?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■ 심성의 두 가지 흐름



일간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심성의 두 가지 흐름

- 식상과 재성 VS 관성과 인성
- 일간이 주도하는 영역 VS 일간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
- 식상생재: 익숙했던 곳을 벗어나,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
- 관인상생: 나의 욕망과 즐거움을 내려놓고, 조직, 회사, 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며 나를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기

- 관성의 세계에서 전혀 다른 존재들과의 낮선 관계는 늘 갈등과 충돌을 불러일으킴
- 관성을 직업·직장·책임·업무·역할이라 할 때, 인성은 자리를 지키며 내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업무를 꾸준히 지속시켜 나가는 연결고리가 됨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▣ 심성의 확장

- 식상생재와 관인상생을 전혀 다른 리듬이라 할 때, 재생관은 이 전혀 다른 리듬의 축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또 다른 고리가 됨
- 일간은 재성을 극하지만, 일간은 관성에게 극을 당함
- > 내가 좋아서, 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행하는 일이 재성의 세계에 속함
- > 관성은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의 세계에 해당함
- 심성의 흐름은 인간이 태어나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 맺으며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해놓은 것과 같음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■ 심성의 확장

- 식상생재는 발산의 흐름이기에 양적이고 동적이며, 재화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뜻하는 현실적 영역이 됨
- 관인상생은 수용의 흐름이기에 음적이고 정적이며,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세계에 가까움
- 식상생재와 관인상생을 양과 음의 흐름으로 해석하면?

-> 대체로 인간은 낮에 일하며 돈을 벌고, 밤에는 집에서 쉬고 잠을 자며 피로한 몸을 재충전 함

Ex)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의 경우

-> 식상: 상인이 가게에 나가 장사를 하는 행위 -> 식상적 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재화는 재성이 됨

-> 일간이라고 하는 몸을 써서(일간을 소진하며) 돈을 벌고 있음

-> 재성의 결과가 관성으로 이어졌다고 보면, 일간을 극하는 관성은 몸이 느끼는 피곤함에 해당함

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■ 심성의 확장

- > 관성은 일종의 스트레스나 억압적 요소를 동반할 수 밖에 없음
- > 인성은 가게 사장이 매일 손님의 컴플레인에 시달리더라도, 관성이 뜻하는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힘으로 작용함
- > 어떤 컴플레인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점차 깨우치면서, 가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자기 성장의 힘으로 치환하는 것 Ex) 신입사원의 자기개발, 공부하는 학생
- 인성의 작용: 내가 하는 일들을 인내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
- > 다른 의미에서 휴식과 여행의 의미가 있는 만큼, 가게 사장이 피곤함을 느꼈을 때(관성의 힘에 강하게 억눌릴 때) 휴가를 내고 재 충전을 하는 것과 같음(식상생재적 활동은 반드시 몸을 소진시킬 수 밖에 없음)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▣ 심성의 확장

- 재성에서 관성을 거치지 않고 인성의 단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?
- > 일하기 싫다고 무단 결근을 하다가, 회사에서 잘리는 것과 같은 일이 생김
- 관성은 사회적 시선이며, 싫어도 지켜야 하는 규율이자 어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통과 의례
- 누구든 관성의 관문에서 인성의 승화를 거치지 않고서는 주체적 존재로서 우뚝 일어설 수 없음
- 재성에서 관성으로의 흐름은, 한 존재가 개인적 자아를 내려놓고 비로소 사회적 자아로 새롭게 자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됨을 뜻함
- 식상생재가 만들어내는 물질의 세계에 안주하기보다,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넓은 관계를 배우고 나를 성장시키는 재생관의 흐름으로 넘어가야 함

# 생각해볼 거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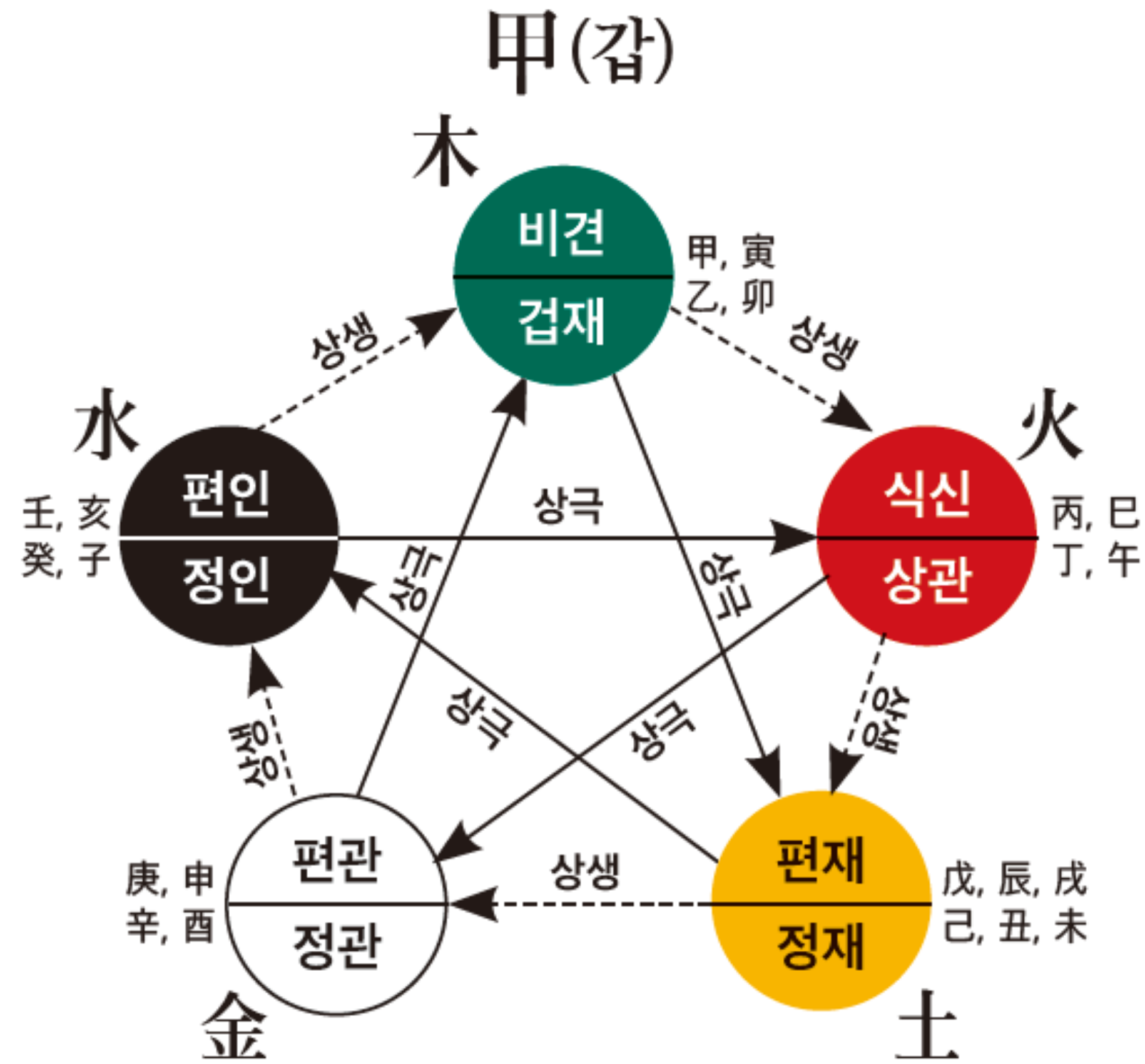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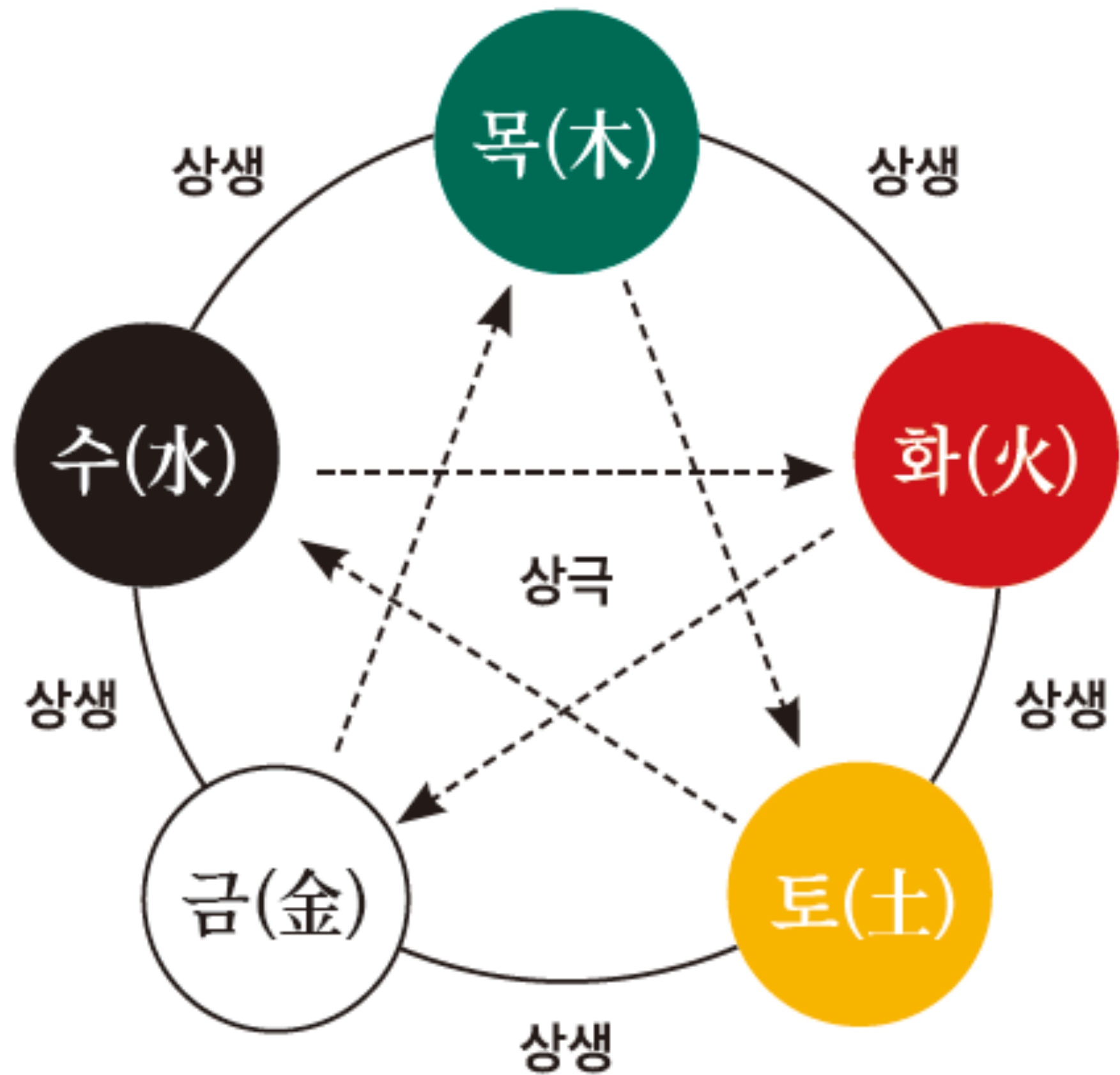
## ▣ 심성의 확장

- 일간은 식상을 생하고,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,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, 관성은 인성을 생하며, 인성은 일간을 생함
- 누구든 이런 흐름을 순차적으로 거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음
- 재성으로 관성을 생해야 하는데, 역사적으로 관성으로 재성을 끌어오려는 악습이 팽배한 적이 있음
- 역으로 관직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승관발재(升官發財)식 사고가 널리 퍼진 사회의 공동체는 급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

\* 안정된 기운에는 정0이 붙고, 불안정한 기운이면 편0이 붙는데, 식신과 상관의 이름만 다른 까닭은?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■ 심성의 확장

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▣ 인성 VS 식상(자격증, 연구, 궁리, 학문, 공부, 예술성)

-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, 취미영역에서의 자격증은?
- 취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자격증은?
- 남들에게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?
- 식상은 말을 하고, 몸을 움직이며, 본인을 제약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힘
- 식상은 관성을 극하니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(관성)에는 관심이 없는 대신,  
내가 관심을 두고 궁금해하는 분야에 집중하며 지적 탐구의 희열을 느낌
- > 글쓰기나 요리, 음악, 체육 등의 취미나 예체능 활동을 할 경우 엄청난 성과를 낸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▣ 인성 VS 식상(자격증, 연구, 궁리, 학문, 공부, 예술성)

- 인성의 예술은 편인이 가진 예술성을 뜻함 VS 편인은 하나에 몰두할 경우 광적인 집요함을 보임
- 식상의 취미가 대중성을 보이기 때문에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, 편인은 예민하여 대인관계의 폭도 좁고, 몰두하는 분야 또한 매우 협소함
- 식상이 A를 몇 개월 배우다 흥미를 잃고 B에 새롭게 흥미를 가진다면, 편인은 A를 A'로, A'를 A''로 치밀하게 파고 들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쌓아 나감
- 식상의 예술성은 자기를 세상 바깥으로 표현하며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격임에 반해, 편인의 예술은 세상 바깥을 향하기보단 자기 안으로 향하며 그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물들을 만들어 냄(대중적인 예술 VS 고독한 천재의 예술)

# 생각해볼 거리

## 사주 살펴보기

시주	일주	월주	연주
편재	본원	식신	편재
辛	丁	己	辛
丑	未	亥	未
식신	식신	정관	식신
**	*		*
癸辛己	丁乙己	戊甲壬	丁乙己
묘	관대	태	관대
	화개 양인 암록	역마 천을	화개 양인 암록

- 이 사주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운은?

1) 조토 식상 2) 수 관성

- 이 사주에서 큰 도움이 되는 기운은?

1) 목 인성 2) 토 재성

# 생각해볼 거리

## 사주 살펴보기

시주	일주	월주	연주
*	●	●*	
정인	본원	정재	편관
丁	戊	癸	甲
巳	辰	酉	子
편인	비견	상관	정재
▲	▲●	▲●	▲
戊庚丙	乙癸戊	庚辛	壬癸
건록	관대	사	태
	화개 백호	도화	월공

- 이 사주에서 가장 힘이 약한 오행은?
- 화 오행과 토 오행의 힘을 비교하면?
- 정사 VS 병오일주는?
- 월지 금이 강한 이유는?

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▣ 인성 VS 식상(휴식)

- 식신과 인성 모두 게으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음
- 식신은 느긋하며, 삶에서 여유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함
- > 골치 아픈 일들은 떠맡기 싫어하고, 복잡한 일에는 머리를 쓰고 싶어하지 않음
- > 식신이 강하면 몸은 바쁜 대신, 생각하는 귀찮아 하니 머리는 게을러지게 됨
- 인성은 몸은 움직이기 싫어하지만, 머릿속에는 식신과 반대로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남
- 왜 그런지 의심하고, 질문하고, 상상하는 등 하나의 현상을 두고도 여러 생각을 함
- >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리는 쉬 없이 돌아감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▣ 인성의 휴식과 식상의 휴식이 다른 점은?

- 인성은 가만히 앉아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강점이 큼
- 식신은 인성에 비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몸을 움직이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 타기, 요리하기, 공예 등 취미성이 강한 활동에 강점이 큼
- 인성과 식신 모두 놀고 싶어하지만, 더 정확히 말하면 인성 중 편인이 놀고 싶어한다는 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다는 뜻(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 읽기도 해당)
- 식신이 놀고 싶어한다는 것은 즐겁게 놀고 싶어한다는 뜻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▣ 심성 정리하기

- 심성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, 자칫 키워드에만 붙잡혀 깊이 있는 통변이 불가능함 -
- 식상은 키워드로 언어, 표현, 식복, 의식주, 식욕, 수면욕, 성욕
- > 명리학에서는 먹는 것과 말하는 것, 그리고 생식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같은 계열로 바라본다는 것
- 겁재에는 왜 혁명과 허무의 키워드가 있을까?
- > 일간과 음양이 다른 매우 강한 힘인데, 경쟁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 겁재는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전복적 힘까지 지니게 되었음(ex. 혁명의 정신)

# 생각해볼 거리

## ▣ 심성 정리하기

- 편재가 봉사나 기부를 뜻하게 된 이유는?
- 편재는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 재물을 말함
  - > 이는 내가 가진 재물도 원칙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라 사회와 타인의 재물을 잠깐 보관하는 것
  - > 동양의 현자들은 돈은 사회에 베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 바라 봄
- 편재의 재물을 가진 자는 돈을 남을 착취하는 도구가 아닌, 남을 위해 베푸는 데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봄
- 편재의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면? ->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거나 적은 돈이라도 기부하면 됨

# 실전 사주 풀이

초명(남) 40세 중화(52)		1985년9월4일(양력) 1985년7월20일(음력, 평달)							
		시주	일주	월주	연주				
		정인	본원	편인	정인				
		乙	丙	甲	乙				
		未	午	申	丑				
		상관	겁재	편재	상관				
		*			*				
		丁乙己	丙己丁	戊壬庚	癸辛己				
		쇠	제왕	병	양				
		백호 천의	도화 양인 월공	역마 문창 암록					

99	89	79	69	59	49	39	29	19	9
편인	정인	비견	겁재	식신	상관	편재	정재	편관	정관
甲	乙	丙	丁	戊	己	庚	辛	壬	癸
戊	亥	子	丑	寅	卯	辰	巳	午	未
식신	편관	정관	상관	편인	정인	식신	비견	겁재	상관
묘	절	태	양	장생	목욕	관대	건록	제왕	쇠

## 1. 일간 병화의 특징

- 감정적 요소, 시각적 특징, 오행의 특성, 성격)

## 2. 일지 오화의 특징

- 음과 양의 관점, 왕지의 특징, 단점, 십성의 작용

## 3. 천간 목의 특징

- 목의 인본주의적 속성, 편인과 정인

## 4. 월지 신금의 특징

- 생지의 작용, 월지가 내포하고 있는 욕망, 가능성, 잠재력

## 5. 연지 축토, 미토의 특징

- 화개, 상관의 특징, 습토와 조토

시주	일주	월주	연주
정인	본원	편인	정인
乙	丙	甲	乙
未	午	申	丑
상관	겁재	편재	상관

1. 오행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?(난이도 중)

- ① 추진력이 쩐다.
- ② 끈기나 자기절제력이 가히 부처님만큼 강하다.
- ③ 심장 또는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 있을 수 있다.
- ④ 독립적이며 자기주도적인 형태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.
- ⑤ 예의없는 사람을 무진장 싫어한다.

2. 십성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(난이도 중)

- ①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없으면서 이것저것 관심이 많다.
- ② 지를 때 제대로 지른다!
- ③ 아랫사람을 잘 챙긴다.
- ④ 창의적이며, 자기표현력이 좋다.
- ⑤ 성격이 나무늘보와 같이 차분하며 절대 급하지 않다.

시주	일주	월주	연주
정인	본원	편인	정인
乙	丙	甲	乙
未	午	申	丑
상관	겁재	편재	상관

3. 위 사주가 수 관성이 무력하기 때문에 보이는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 (난이도 중)

- ① 하나의 일에 오랫동안 매진하지 못한다.
- ② 나의 가치와 존재감을 조직에서 찾으려 한다.
- ③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쓰기보다 개성을 추구한다.
- ④ 간혹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어려워한다.
- ⑤ 비교적 자유롭고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다.

4. 위 사주를 보고도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면? (난이도 중)

A. 이 사람의 적성	B. 자식의 수	C. 어울리는 직업
D. 선호하는 이상형	E. 이혼 횟수	

- ① A, B
- ② B, C
- ③ B, E
- ④ D, E
- ⑤ C, D

시주	일주	월주	연주
정인	본원	편인	정인
乙	丙	甲	乙
未	午	申	丑
상관	겁재	편재	상관

5. 위 사주의 인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 (난이도 하)

- ① 철환: “위 사주는 편인도 있고 정인도 있으니 인성혼잡이라 할 수 있어.”
- ② 동현: “세상에 인성이 혼잡되어 있다니... 저건 이미 망한 사주야.”
- ③ 아능: “인성이 혼잡되어 있다는 건 편인과 정인 양쪽의 기운을 다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?”
- ④ 병용: “인성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, 어쩌면 편인과 정인 양쪽의 기운이 서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?”
- ⑤ 건우: “을목 정인들이 전부 토 위에 있는 것과 달리, 갑목 편인은 지지 신금 위에 있네. 을목과 갑목을 비교하면, 저 사주에서는 갑목의 힘이 더 약한 거지?”



시주	일주	월주	연주
정인	본원	편인	정인
乙	丙	甲	乙
未	午	申	丑
상관	겁재	편재	상관

6. 이 사람이 가질 법한 직업으로 어울리지 않은 것은?(난이도 중)

- ① 사진작가
- ② 방송·미디어 업계 종사자
- ③ 영업직
- ④ 일반 행정공무원
- ⑤ 작가